

광양시 관광 활성화, 주민사업체가 이끈다

지역 5개 사업체 문광부 관광두레사업 공모 사업 선정 일자리 만들고 소득 증대 효과...시, 안정적 성장 지원

광양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체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9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공모에 지역 내 5개 사업체가 시 최초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관광사업 신규 창업 주민공동체 및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기존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업체로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5개 사업체는 육육이나

르사(식음), 버리(식음), 라파라파인형극(체험), 물빛돋을별(식음), 우리두리현뽕(기념품)이다. 주민사업체는 지역관광 연관성, 자발성 및 역량, 활용가능 자원, 사업성, 사업체 구성 내용 등을 기준으로 관광두레사업단의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주민워크숍을 통해 전문가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무전문가와 멘토링, 교육훈련, 파일럿사업, 홍보마케팅 등 역량강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기간은 3년이고, 사업 종료 후 종합평가에서 육성 가치가 인정되면 2년간 경영진단 및 홍보마케팅 등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한 주민사업체 대표는 "관광두레가 지원해 주는 주민사업체 역량강화와 맞춤형 멘토링, 파일럿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광양시와 적극 협조해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져 광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광양시 관광과장은 "과거 관광정책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에 집중해 왔는데, 관광객 증가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관광사업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두레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5개 주민사업체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 관광사업체 등 함께 하는 광양관광협의회를 구성해 협치 조직을 본격 꾸려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지역특산물 '빛그린 광양매실' 5년 연속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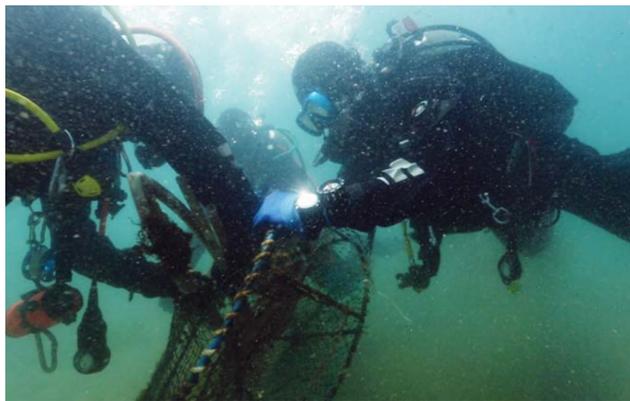
광양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그린 광양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지역특산물 분야 5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사진)에서 '빛그린 광양매실'이 지역특산물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여 1차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그동안 시는 매실산업 활성화와 광양

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매실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확대, 가공제품 개발,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마케팅 활성화, 매실 기능성 연구, 지역 전략식품 산업육성 등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CF 등을 제작 방영하여 광양매실의 명성과 매실의 유용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내외 매실소비 저변 확대에도 힘써 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빛그린 광양매실이 올해 5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광양매실 생산 및 유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 두 번째 '#SteelSaveEarth' 캠페인 플라스틱 폐기물 심각한 해양환경 정화 나서

포스코가 지난 28일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보호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두 번째 '#SteelSaveEarth 캠페인'을 시작했다. #SteelSaveEarth 캠페인은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철재 용품 사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포스코가 지난 4월 처음 시작한 친환경 캠페인이다. 약 두 달간 진행된 캠페인 기간 동안 오프라인 행사 참여자 수만 5000명이 넘었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에는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포스코는 두 번째 #SteelSaveEarth 캠페인을 론칭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하는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과 함께 오는 10월 19일 '클린오션데이'를 개최한다. 포스코 클린오션 봉사단은 스킨스쿠버 자격을 갖춘 포스코 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 단체다. 포항과 광양, 인천, 강릉 등 포스코그룹 사업장 인근의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 창단해 지금까지 540회가 넘는 수중정화활동으로 약 1650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클린오션 봉사단과 함께 해양정화봉사를 함께 할 일반인 일일 봉사단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자세한 지원 방법은 포스코공식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된 일일 봉사단과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하루 동안 광양제철소 인근 해양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이 포항 흥환리 앞바다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펼치는 모습. (광양제철소 제공)

환경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SteelSaveEarth의 플라스틱 프리 운동과 클린오션데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0일부터 포스코 스테인리스틸로 만든 스틸 보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스틸 보틀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거북, 고래상어, 바닷새 등 해양보호생물을 그려 넣어 캠페인의 취지를 한번 더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마을 선정

광양읍 마산마을·진상면 창원마을을 개선하게 된다. 시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 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했으며, 주민설명회도 마쳤다. 또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현장포럼(사진)을 통해 지역주민이 마을 자원을 스스로 발굴하고, 취약한 부분을 선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을 통해 4월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내용의 우선 순위 결정, 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자생적 마



을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정은태 광양시 건설과장은 "시민과 함께가는 참여 행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겠다"며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매력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당신이 몰랐던 광양시민만의 특별한 혜택' 발간

광양시는 임신, 출생에서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생활복지 정보 70개를 담은 책자인 '당신이 몰랐던 광양시민만의 특별한 혜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은 광양시의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과 지역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근로자에게 홍보하고, 지역 내 장기 정착과 타 지역 거주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는 광양시민이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표 시책 15건을 금액으로 환산해 책자에 안내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가정 모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정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금액 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사업들로 광양시에 거주하며 15개 복지 서비스 모두를 지원받을 경우 최대 3692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양시와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은퇴자 등 생애주기 5단계로 나눠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생애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책자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비치하고 기업체 직원 대상 인구조별 설명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전영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는 승산만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